

온난화·토지매립... 中 최악 홍수는 '인재'

폭우 빈도·강도 높아지고 매립으로 홍수 막을 담수호 급감 현대사 네번째 대홍수... "기후변화 고려한 개발계획 짜야"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홍수 사태가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토지매립으로 인한 '인재' (人災)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홍수는 중국 현대사에서 네 번째 '대홍수'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지구온난화·무분별 간척, '대홍수' 가능성 커졌다=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 창장(長江·양쯔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폭우와 홍수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서 태평양 상공의 아열대성 고기압과 창장 유역의 찬공기가 만나 지속적인 폭우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올해 홍수가 유난히 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주범의 하나로 꼽힌다. 1961년부터 2018년까지 '극도로 심각한 강우' 즉 폭우의 발생 빈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 60년 동안 연중 폭우가 내린 날은 10년에 3.9%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진 1990년대 중반부터는 폭우 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홍수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담수호 주변의 무분별한 매립 작업에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토나 산업 용지를 넓히기 위해 담수호를 매워 토지로 만드는 작업이 중국 곳곳에서 일어난 결과, 폭우로 불어난 물을 수용할 수 있는 담수호의 저장 능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얘기가.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江西)성 포양호의 경우 1954년부터 1998년까지 호수 면적이 무려 4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댐과 홍수 통제 시설로 대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고려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번 홍수로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쑤샤 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서 고작

11m 남는 수준까지 치솟은 것은 댐 등으로 홍수를 막으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올해 홍수, 중국 현대사에서 네 번째 대홍수=올해 발생한 홍수는 20세기 이후 중국 현대사에서 네 번째 대홍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홍수는 1931년 발생한 대홍수로, 침수 지역은 잉글랜드 전체와 스코틀랜드 절반을 합친 면적에 달했다. 당시 2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1954년에는 창장 유역에 대홍수가 일어나 3만 명 넘게 사망하고, 1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의 대홍수인 1998년 홍수 사태도 창장 유역에서 발생했으며, 3000 명이 넘는 사망자를 초래했다. 수재민은 1500만 명에 달했으며, 경제적 손실은 240억 달러(약 29조원)에 이르렀다.

올해 홍수는 창장 중·하류 지역에 주로 영향을 미쳐 그 피해 규모가 더 작을 것이라는 얘기가. 하지만 올해 홍수로 인해 중국 내 31개 성·자치구·직할시 중 피해를 본 곳은 이미 27곳에 달한다. 1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이재민 3873만 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수위 조절 위해 방류하는 쑤샤 댐 중국 후베이성 이창에 위치한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쑤샤 댐 수문에서 19일 대량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 남부 창장(長江·양쯔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이날 쑤샤 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서 고작 11m 남는 수준까지 치솟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코로나 와중 여행장려 또 헛발질... 유권자 80% "성급하다"

아베노마스크에 이어 또 실정 국민 3분의 2가 지도력에 의문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천 마스크(일명 '아베노마스크') 사업으로 비웃음을 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번에는 여행 장려 정책으로 못매를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겠다고 국내 여행 비용 일부를 쿠폰으로 보전해주는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도

료를 제외하고 실시하겠다고 미봉책을 내놓았으나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태에 비추면 합리적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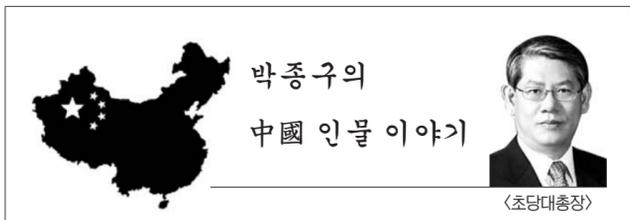
최근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8~19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고투 트래블을 22일 시행하는 것에 74%가 반대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 민영방송 TV 도쿄가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고투 트래블 시행이 "너무 빠르다"고 반응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변함없이 저조했고 비판 여론은 높았다. 아사히, 닛케이, 교도통신,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6월 대비, 이하 동일 2%p ↓), 43%(5%p ↓), 38.8%(2.1%p ↓), 32%(4%p ↓)를 기록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2%p ↓), 50%(1%p ↓), 48.5%(1.2% ↓), 60%(4%p ↑)로 지지율을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 조사를 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은 57%로 지난달 20~21일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아베 총리가 전염병 방지와 관련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66%에 달하는 등 여론은 엄중한 평가를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내년 여름으로 연기한 도쿄올림픽을 다시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에 달했다.

닛케이 조사에서 중의원 해산에 관해 응답자의 57%가 "내년 가을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62%가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의원 해산과 시진핑 국빈 방문은 아베 총리가 여론을 관심을 돌리는 재료인데 이에 대해 민심은 싸늘한 셈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41〉 금희종

희종(熙宗, 1119~1150) 완안단(完顔)은 금나라의 3대 황제(재위 1135~1149)다. 하북에 세운 괴뢰국가 제(齊)를 폐하고 직접 통치에 나섰다. 금나라와 강화조약을 맺었다. 말년에 과음으로 정신박약 상태에 빠져 정치가 문란해졌다.

금 태조 아골타의 차남 종준의 아들로 2대 황제 태종으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았다. 태종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지만 여진 원로들의 압력으로 1132년 완안단을 후계자로 정했다. 1135년 태종이 죽자 제위에 올랐다. 금 왕조 실력자인 종한과 종간은 태종의 아들 종반보다 나 어린 희종이 될 것이냐를 두고 다투었다. 종간은 황제의 권력을 강화키로 하고 종한을 태

번 남송 토벌에 나서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강남은 수로가 많아 기병 위주의 금군으로서 힘의 싸움이였다. 전선이 길어져 보급에도 애로가 많았다. 물을 싫어해 여진족의 용맹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화평 파인 진회가 남송의 재상이 된 것도 양국이 강화조약을 맺기에 좋은 기회가 문란해졌다. 1137년 정월 금나라로 납치된 휘종이 죽었다. 남송의 고종은 생모 위씨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 휘종 유해와 위씨의 송환을 위해 대금화의를 결심하였다. 화평파 거두인 진회가 추밀사로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1139년 화의가 성립되었다. 남송은 금나라를 종주국으로 받들고 매년 세폐로 은 25만냥, 비단 25만필을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금을 종주국으로 받들

금나라 3대 황제... 남송과 강화조약

보령상성사로 임명했다. 황제의 스승 자격이었지만 실권은 약화되었다. 황제 곁에 있어야 되므로 지역기반인 서경을 떠나야 했다. 실의 속에 1137년 종한이 죽었다. 정강지변으로 북송이 멸망하자 금나라는 하북지방에 제라는 괴뢰정권을 수립해 간접통치에 나섰다. 금군을 지휘한 달란은 제남부 지사 유예를 발탁해 하남의 민정을 맡겼다. 유예는 당초 금의 남하를 우려해 좀 더 남쪽지방의 책임자로 전출해 줄 것을 희망했지만 남송의 고종이 허락치 않아 불만이 많았다. 유예는 적극적으로 금에 협조했다. 개봉을 함락시킨 맹장 종한은 태종의 허가를 받아 유예를 1130년 대제황제(大齊皇帝)로 책립하였다.

실력자 종한이 죽자 대제황제 유예의 입장이 약화되었다. 달란과 종반이 힘을 합쳐 제나라 폐위를 주장했다. 유예는 무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제나라 폐지는 금의 권력 강화로 이어졌다. 하남에 제를 세우 북송 주민들이 금의 지배를 기정사실로 여겼다. 유예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고 싶었지만 희종은 그대의 아들이 덕망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예는 총망으로 봉해졌고 내용고 임황부로 옮겨져 1143년 죽었다. 이로써 금은 북송국의 지배자 지위를 굳건히 하였다.

실력자 종한이 죽자 대제황제 유예의 입장이 약화되었다. 달란과 종반이 힘을 합쳐 제나라 폐위를 주장했다. 유예는 무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제나라 폐지는 금의 권력 강화로 이어졌다. 하남에 제를 세우 북송 주민들이 금의 지배를 기정사실로 여겼다. 유예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고 싶었지만 희종은 그대의 아들이 덕망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예는 총망으로 봉해졌고 내용고 임황부로 옮겨져 1143년 죽었다. 이로써 금은 북송국의 지배자 지위를 굳건히 하였다.

송과의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여러

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잃어버린 하남과 섬서의 땅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실리를 선택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금나라 조정 내부의 갈등으로 이화의는 파기되었다. 희종과 종간은 달란, 종반의 화의파를 숙청하였다. 남송은 돌려받은 하남과 섬서를 돌려받 생각 없었다. 1140년 종필이 총사령관이 되어 재차 남침했다. 악비, 한세충, 장준 등의 활약으로 금의 침입을 막아냈다. 1141년 8월 금의 실력자 종간이 죽었다. 남송과의 싸움에 지친 금도 화의를 희망했다. 진회는 대금경쟁인 악비를 역모로 몰아 죽였다. 악비의 죽음으로 남송은 주전론을 누를 수 있었다. 1142년 다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회하를 경계로 하고 세폐는 전과 같았다. 그러나 개봉과 장안의 금의 수장으로 들어갔다. 휘종의 유해와 고종의 생모 위씨가 돌아왔다.

종원의 패자가 된 휘종이 정신이상자가 되어 황족과 종친을 숙청하였다. 과음으로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 남에서 온 무문허중, 고사담 등의 문인을 죽였다. 호부상서 종래, 전각, 해의 등 중신을 취중에 죽였다. 1149년에는 황후와 비빈을 거침없이 죽였다. 재상인 평정사 완안단은 희종의 사촌인데 궁중 쿠데타를 일으켜 희종을 죽이고 즉위했다. 4대 황제 해릉왕이다. 중국 사상 보기 드문 폭군의 등장이다.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